



생각이 팔자다



윤제학
본지 논설위원

문득 유리창을 닦고 싶었다. 하늘이 너무 맑았기 때문이다. 불과 보름 전은 세상을 몰바다로 만든 바로 그 하늘인가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 하늘을 바라보는 마음은 편안하지 않았다. "가을 들뜬다는 어설픈 친정보다 낫다(한국 속담)"지만, 올 가을은 "곡물이 비쌀 때 죽음을 싸다(아르메니아)"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 "풍년이 팔 것 없고, 흉년이 살 것 없는(한국)" 서민들에게는 하루하루가 가파른 절벽이다. "오리사의 실패는 한겨울이지만 농부의 실패는 일년 분(네팔)"이라고 했다. 농민들의 상심이 어느 때보다 더 큰 상황이다. "농사일만 문고 수확은 문지 않는(중국)"은 그들이지만, 올 가을에도 과연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는지. "유월 지승(여름 고생이 지나면 팔월 신선(수확)이 온다(한국)"고 했다. 그러나 올해는 한겨울에 가장 큰 비를 맞았다. 그야말로 "천 날 가뭄에 하루 홍수(일본)"격이었다. 하지만 홍수는 그것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다. 농민들에게는 값싼 중국 농산물과 선진국의 수입 개방 압력이라는 더 큰 홍수가 기다리고 있다. "가을별에는 딸을 쪼이고 봄별에는 며느리를 쪼인다(한국)"는데, 그 가까운 별을 쪼 보지도 못하고 스러져간 것들로 하여 이 가을은 참으로 우울하다. 그래도 어쩔 것인가. "가을 마당에 빗자루 들고 줍을 주어도 농사 밭이 어둡다(한국)"는 말이라도 위안 삼는 수밖에. "태양이 사라지지 않는 한 잠시 동안의 암흑은 겁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인, 그것도 중국의 지배 하에서 신음하는 티베트의 속담이다. '생각이 팔자'다.



불자 세상보기

최성렬
조선대 교수, 불교철학

빠꾸기의 '암체 산란'

암체 산란을 한다. 기왕에 탄란을 했으면 잘 품어주기(抱卵)라도 하면 될 미울 텐데 그것마저 피꼬리한테 미루는 놈이 빠꾸기다. 그런데도 피꼬리는 제 알인 줄 알고 빠꾸기의 알을 품어 새끼를 깬다. 생태적으로 피꼬리보다 빠꾸기 알이 먼저 부화된다고 한다. 빠꾸기의 부화기간은 열을 남지 않는 피꼬리보다 그보다 하루 이틀 늦기 때문이다. 부화된 빠꾸기 새끼는 이틀을 넘기지 않고 앞에서 갓 깨어난 피꼬리 새끼나 날아 있는 알을 등지 밖으로 모두 밀어낸다. TV에서 본 그

모습은 '생의 의지'가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했다. 그리고요 약 3주일간 피꼬리한테 먹이를 받아먹고 지내다 날 때가 되면 본래 제 어미에게로 가버리는 천재의 암체 같은 놈이다. 빠꾸기의 이런 유감과 원정출산은 너무나 남아 있다.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면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교육, 이민할 경우 영주권 취득용이, 군복무 기피 등 엄청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국 국민에게 부과된 각종 의무는 희미하고 혜택만 누리겠다는 것이다. 일견 버거운 과외비,

치열한 입시경쟁, 병역의무, 취업난 등 불안과 막막함이 겹친 미래를 생각하면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생의 의지로 이해해주고 싶다. 그런데도 범의 맹점이나, 이중 국적을 악용하여 갖은 이익을 다 챙기려 드는 일부 가진 층의 행태는 빠꾸기보다 더 '암체' 같다. 그런데 최근, 원정출산 그 자체는 위법이 아니라는 뉴스가 전해졌다. 앞으로 가 더 걱정이다. 이미 해외이민의 열풍이 분데다가 이제는 원정출산에 가속도가 붙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 일부 계층이 누려온 비뚤어진 특권을 애써 눈감아온 중산층까지 원정출산 대열에 합류할 날이 멀지 않은 것이다. 이리다가 급수 강산이 텅텅 비어 버릴 날이 올 지도 모르겠다. 원정출산의 이익을 제로화하겠다고 할 수도 있으나 그것은 차선책에 불과하다.

"도둑 불강중", 다만 이것을 걱정해야 한다. 자녀가 성장하여 자신이 왜 이중국적자가 되었는지를 말해주는 부모에게 과연 존경심이 생길까. 요즘 급증하고 있는 원정출산을 보면서 영풍하게 빠꾸기가 생각난 것은 '솔 적다'고 울어대던 소쩍새가 그리워져 있던 모양이다.

본문(本欄)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린마당 태풍 '매미' 복구현장 봉사자들의 목소리

'희망 심어주기' 관심과 동참 필요

수재민에 웃음 찾아 줘야



여오숙

선재마을의료회 간사

수재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달래보고자 의사와 간호사를 중심으로 22명의 의료봉사팀을 구성, 9월 20일 의령 봉수면 서안리로 황급히 내려갔다. 차를 타고 내려가는 중간중간 태풍 매미가 쓰러트리던 간 처절한 흔적들이 눈앞에 스쳐지나가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게 만들었다. 서안리에 도착하니 다들 슬럼개도 군인들의 수해복구 작업으로 마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모습이었다. 그러나 가재도구며 집안 살림들이 집밖에 펼쳐진 가운데 반겨주실까하며 뛰쳐나온 마을 어르신들의 모습이 가슴이 저머졌다. 그 분들의 얼굴에 근심 빛을 조금이라도 지울 수 있길 바라며, 우리는 서둘러 마을 노인당에 진료실을 마련했다. 팔, 다리 관절이 아파 절뚝거리시는 분들과 갑작스러운 수해로 놀란 분들의 몸과 마음을 단 한번의 진료로 치료할 수는 없으나, 그 아픈 가슴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싶었다.

재정마련과 인력수급 시급



이기표

조계종 자원봉사단 부산경남 지부장

봉사를 하면서 가장 절실한 것은 일손이다. 태풍 매미가 지나간 사흘 동안 봉사활동에 함께 할 사람을 모으려 보냈다. 각 사람마다 전화를 하고 협조를 구해야 했다. 16일부터 지금까지 곳곳에서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늘 부족한 것이 인력이다. 다음이 재정 문제다. 봉사활동에 필요한 모든 재정도 인력처럼 그때그때 마련하면서 겨우 봉사단의 활동을 유지시켜 나갈 정도는 끝이 없고, 비용과 인력은 뒷맛이 부족하지만 한다.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재난 앞에 좌절하고 있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도움을 주는 일을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긴급 구호활동에 대한 스님과 불자들의 인식전환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그나마 자원봉사단과 같은 불자들의 봉사 조직 발족되면서 일손이 부족과 재정적 어려움 가운데서도 구호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긴급재난구호 현장에서 눈에 띄지도 않을 만큼 미미했기 때문이다. 불자들의 봉사활동이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재정적 기반 마련과 봉사 인력 수급이 원활해야 한다. 또한 긴급 상황에 대비한 재정적 기반 마련에 스님과 불자들이 적극 동참해야 한다. 스님들과 불자들의 관심과 동참만이 지금 이 시기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어 애태우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손길이 닿게 하는 방법이다. 후원 및 봉사 동참 (051)506-0146

정부의 적극적 대처 절실



김용철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자원봉사자

수해복구 자원봉사를 위해 찾은 강원도 정선의 한 마을은 매스컴 보도보다 더 참담한 모습이었다. 하루아침에 집과 논, 밭 등을 수해에 내몰려버린 현지 주민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소, 돼지 등의 가족들이 무더기나 폐사됐지만 심각한 인력부족으로 손쓸 겨를이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강원도 지역에서는 전염병 발생의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자원봉사자들과 군인, 경찰들이 수해복구에 나서고 있지만 피해복구를 위한 도움의 손길은 여전히 부족하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생활품의 지원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강원도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다. 해마다 수해가 발생하면 정부의 늦장대응과 안이한 피해복구 지원 비난 대상이 되곤 한다. 올해도 정부의 이런 태도는 수재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강원도는 남부지방보다 더 빨리 추위가 찾아왔는데, 집과 생활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실의는 추위와 함께 더욱 깊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수해피해 지역의 현지상황을 시급히 파악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행정상 불필요한 단계를 생략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수재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장애인들 차별없는 하루 '만끽'



사단법인 우리는선우와 우리는선우청년회는 9월 21일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장애인들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마음으로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운동·놀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또 이날 행사에 참가한 1백20여명의 장애인들에게 밝게 웃고 있는 자신의 표정을 담은 플라로이드 즉석사진을 선물했다. 참가자들은 몇시간에 불과했지만, 차별 없는 하루를 만끽했다.

장군속매

러, 달라이라마 입국 거부



러시아 외무부는 9월 23일 달라이라마의 입국이 러시아-중국간 협정에 위배되고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했다고 발표했다. 외무부는 성명서에서 "달라이라마는 훌륭한 종교지도자로 추앙받고 있고, 그를 따르는 신자도 많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그의 입국과 관련해 국익을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러시아의 달라이라마 입국 거부부는 2001년과 2002년에 이어 세 번째다.

'한국 선문화학회'가 창립됩니다

창립선언문

만유의 실존을 통찰과 직관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공적(空寂)에 상상과 조화로서 세상을 이끌어 온 선(禪)은 인류의 정신적 의지이자 마음의 평온과 삶의 안정을 얻을 수 있는 정신문화의 보장(寶藏)입니다. 사람들은 선을 통해 불안과 고뇌를 해결하고 진정한 자신의 참모습을 찾아 결핍 없는 무애의 삶을 살았으며, 이웃에게는 자애와 여유, 안심(安心)과 적정으로 증생사를 이겨내도록 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다양하고 세분화된 가운데 급변하는 오늘날의 삶의 현상은 시대의 난제를 이겨낼 수 있는 정신세계와 행동양식을 요구하고 있고, 선 또한 여기에 맞춰 새롭게 조정되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물질만능과 배급주의, 과학기술에 대한 맹신과 인간성 상실을 조제한 오늘날의 정신문명은 이제 더 이상 인류를 구제해 줄 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인류를 파멸과 회복불능의 상태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종교와 종파를 초월한 선은 바로 이런 인류의 문제를 극복해 낼 수 있는 유일한 활로(活路)라고 평가되고 있는 사상이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자세하고 구체적인 제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많은 학자들이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선문화학회(가칭)를 창립하여 선학을 통한 시대사상의 정립 및 정신적 자재와 삶의 평온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본 학회에서는 선학의 기본 이론에 대한 정리 및 재조명, 선을 통한 현대적 제 문제의 극복방법 고찰과 대안제시, 기존 선문화에 대한 연구, 현대인에게 적합한 새로운 선문화의 연구와 발표 등을 하고자 합니다. 선사상의 정립 및 현대적 조망, 시대문제의 선학적 접근과 극복방안, 새로운 삶의 환경 제시를 통해 선의 현대화와 생활화를 이루고, 나아가 전세계적인 교류를 통해 인류가 당면한 여러 난제들을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선학과 선문화에 관심이 있으신 많은 분들의 동참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03. 10. 4.
한국 선문화학회(가칭)

창립 학술대회 안내

한국선문화 학회(가칭) 창립 학술대회를 각계의 전문가와 제방의 고승대덕을 모시고 다음과 같이 거행하고자 합니다.

■일시 : 2003년 10월 4(토) 1시 30분

■장소 : 불교방송 3층 법당

- 제 1주제 한국 선학연구 현황

- 사회 : 김성영(중앙승가대 교수)
- 발표 : 이택진(창원전문대 교수)
- 토론 : 김병룡(원광대 강사), 김영옥(가산불교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 제 2주제 한국 수행문화 현황과 전망

- 사회 : 송위지(서울보건대 교수)
- 발표 : 문윤식(동국대 강사)
- 토론 : 미산스님(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유진스님(동국대 교수)

■전화 : 017-243-5838 E-mail : zen@zenculture.org 홈페이지 : www.zenculture.org

<발기위원 명단> 각목스님(초기불전연구원 지도부), 고강욱(부경대 교수), 고명수(동원대 교수), 고재욱(강원대 교수), 권오민(경상대 교수), 김 진(울산대 교수), 김경희(위덕대 교수), 김경희(대구대 교수), 김광식(부천대 교수), 김규철(불교방송 사장), 김낙진(진주교대 교수), 김명식(진주교대 교수), 김문용(고려대 민원 교수), 김미영(서울시립대 교수), 김병룡(원광대 강사), 김병환(외국어대 교수), 김성영(중앙승가대 교수), 김성철(동국대 교수), 김형선(인천대 명예교수), 김영호(가산불교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영현(부경대 교수), 김용성(동국대 명예교수), 김용현(한양대 교수), 김준중(원광대 강사), 김종영(영산대 교수), 김중순(강원대 교수), 김주현(강원대 교수), 김준홍(대구경상발전진흥원 진로과장), 김현학(동경대 연구원), 김철수(강원전문대 교수), 김철환(경북부 정보처리연구소원), 김지은(동국대 강사), 김태연(무성선원 원장), 마성스님(불리문헌연구소 소장), 문윤식(동국대 강사), 미산스님(조계종 사회부장), 박경환(한국국학진흥원 책임연구원), 박광선(서경대 교수), 박봉우(강원대 교수), 박성민(서울대 교수), 박영태(서울대 교수), 박영태(충주대 교수), 박영태(충주대 교수), 박원재(한국국학진흥원 수석연구원), 박재현(경희대 강사), 박종현(인제대 교수), 박태원(울산대 교수), 박태원(서울대 규장각 연구원), 방 인(경북대 교수), 선혜스님(선사대장사), 성태환(강원대 교수), 손소희(이화여대 교수), 손창대(국민대 명예교수), 송영선(한양대 강사), 송위지(서울보건대 교수), 신윤환(서경대 교수), 신원환(강원대 교수), 신철관(강원대 교수), 신학식(KIST 교수), 안재철(계주대 교수), 안종태(강원대 교수), 양무석(대전보건대 교수), 양형선(고려대 교수), 오성무(고려대 교수), 오진택(한림대 교수), 오재현(선조각가), 육한석(강원대 교수), 용운스님(초의학술재단 이사장), 원경스님(승광사 학원), 원경순(중산대사상연구소 연구원), 유관종(중앙대 교수), 유병우(고려대 교수), 윤영태(동국대 교수), 윤원택(서울대 교수), 윤종갑(부산시립대 교수), 윤철환(시우,지 주권), 윤정현(서울교대 교수), 윤희천(고려대 교수), 이계현(여성신문사 전 사장), 이덕진(창원전문대 교수), 이병욱(중앙승가대 연구원), 이복수(강원대 교수), 이삼미(성신여대 강사), 이선미(방송위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위원), 이선숙(선무용가), 이수희(주)동진메카트로닉 대표이사), 이승환(고려대 교수), 이승환(경원대 교수), 이종복(전남대 교수), 이진오(부산대 교수), 이창규(전북대 교수), 이태승(위덕대 교수), 이호근(강릉대 교수), 이효길(안동대 교수), 임영환(동신대 강사), 임병권(대전대 교수), 임영택(단국대 교수), 장현진(한국부동산개발부처(주) 고문), 장호득(단국대 교수), 전경길(부경대 교수), 전영하(JNU,Lech 대표이사), 정계섭(덕성여대 교수), 정권호(고려대 교수), 정기문(강원대 교수), 정대현(동덕여대 교수), 정성홍(중앙대 교수), 정성호(충북대 교수), 정성호(충북대 교수), 정영진(서울신대 교수), 정현구(연세대 전 총장), 조기숙(이화여대 교수), 조영제(고려대 연구원), 조보현(서경대 교수), 조성현(고려대 교수), 조영환(원광대 교수), 조호수(동국대 교수), 진철문(한국 조형연구소 대표), 차차서(현대불교신문 상임논설위원), 최성열(조선대 교수), 최연식(서울대 강사), 최유진(경남대 교수), 최정규(중산대사상연구소 연구원), 최중윤(강원대 교수), 한기문(상주대 교수), 허인섭(덕성여대 교수), 허필립(진각대 교수), 허남규(계주대 교수), 핵슬스님(동화사 강주), 홍석경(고려대 교수), 홍원식(계명대 교수), 황영문(한국예총 김천지부), 황영식(서울교육대학교 교수), 황인규(중앙승가대 연구원), 양민식(이화여대 여성학 연구소 연구원), 손수일(변호사), 김영재(대전시립미술관 관장)